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

하선숙* · 이의연** · 전정호***

요약

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학업스트레스 및 문화적응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대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00부의 응답을 확보하고 20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은 SPSS 27.0, Mplus 8.7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호혜성 원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은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밝히는데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대학교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고 호혜성 원칙의 형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대학교 생활적응

* 제1저자,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hasunsook@dankook.ac.kr

** 제2저자, 가톨릭관동대학교 초빙교수, liyiran8986@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부교수, edjohn90@dankook.ac.kr

<논문 투고일> 2022.5.29

<논문 수정일> 2022.7.12

<게재 확정일> 2022.8.08

I. 서 론

산업혁명 발전과 함께 대학생 취업문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서·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사회적 문제, 대학 생태계 변화의 취업과 진로 문제로 인한 치열한 경쟁 때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은 것처럼, 최근 취업난 문제로 인한 우울감 증가와 취업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가속화되면서 대학생들의 정서적,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나 취업스트레스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내국인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인 아르바이트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대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생활비, 주거비, 등록금에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체류 중 6만명 외국인 유학생을 거쳐 2019년 16만명(160,165),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넘어서면서 현재까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대학교육에서 다양성과 수용성은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못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통해, 날로 멀어지는 대학생들의 학우관계를 회복하고 강화시키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건설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 세계화의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국가와 인종으로 구성된 대학교의 국제화 및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고, 다문화수용성을 어느 정도로 강화시켰지만, 현실적으로 다국가, 다인종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문화적 적응의 차이에 따른 공감, 의사소통 등과 같은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국내 대학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도전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유학생 증가 추세에 맞춰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우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지원정책도 필요로 한다.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학업을 완성하고, 만족도가 높은 유학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과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과 학부과정을 입학하기 위해, 한국어 어학연수로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지원 정책과 내국인 학생과의 관계형성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문제를 비롯한 유학생생활과 유학공부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들었던 경험을 탐색·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완화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적응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Carter-Francique, Hart, & Cheeks(2015)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기본심리욕구가 강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학습을 선호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학우들과 협력관계의 형성이나 대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된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의 정도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결국 기본심리욕구가 증가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에 의해 충족된 기본심리욕구가 강화될 경우 무기력 및 학습·취업스트레스가 아닌 대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이를 심리적 욕구가 충족된다고 지각할수록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으로 이어지지만(Coleman, 1988; Lin, 2002; Putnam, 2000), 기본심리욕구가 낮은 경우, 불안하고 회피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Ream & Rumberger, 2008). 선행연구에서도 학우들 간의 사회적 자본이 높게 형성될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높아졌으며(김태선·김천기, 2007; Jenkins, Belanger, Connally, Boals, & Durón, 2013),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대학교 생활적응이 높아진다(Valenzuela, Park, & Kee, 2009).

그러나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주로 주목하고 연구해온 반면에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 기본심리욕

구,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기본심리욕구를 강화하며, 최종적으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구조적 인과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러한 연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가시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심리욕구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생활적응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과 이러한 정책 개발을 하는데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의 효과

오늘날 대학교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인구의 감소로 인한 정원축소 및 정원부족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학생을 유치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에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단순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 내국인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상당한 과제로 남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 교수, 학생들 간에 사회적 자본을 장려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역량강화를 향상시키는 뿐만 아니라 대학교 생활적응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윤지온 & 강영배, 2019; Valenzuela, Park, & Kee, 2009). 이와 같은 논리로 대학교에서 학교의 정체성과 유학생들의 정체성이 적합하다고 의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거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 교수를 비롯한 학우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며, 이를 통해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면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원활한 교환관계의 형성에 의거하여 유학생들은 자신에게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주어진 학업을 초월하여 대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거나 학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Ream & Rumberger, 2008). 반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적 적응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르다고 느끼거나 학교생활에서 다른 학우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협력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을 지각하지 못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학습몰입과 심리적 안정감이 파괴되어 자신에게 정해진 학습을 넘어서는 무형식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하지 않고 학습생활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탈진으로 이어질 것이다(김한별, 2009). 자신의 학습생활을 의미를 크게 지각하거나 학우들의 협력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게 되면 대학생들은 학업완수를 위한 자신의 학습행동이 결국에는 대학교 생활적응을 높이게 된다(이정연, 2021; Bruning, Dempsey, Kauffman, McKim, & Zumbunn, 2013). 특히, 사회적 자본은 실제 공유가치 및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 인지체계를 포함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얻은 긍정적이고 지각된 정서적 지지의 인지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대학교에서 정체성을 가지며 생활적응을 증가시키면서, 학습량이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서로에게 적응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체성, 상호협력을 보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유가치 및 지각된 정서적 지지의 인지체계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학생생활에 대해 외로움을 지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학교 생활적응, 상호협력, 학습몰입도 감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김한별, 2009; Bruning, Dempsey, Kauffman, McKim, & Zumbunn, 2013).

반면에, 대학교육이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고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강화하였을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체성이나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어 생활적응이 증가하였다(이세나, 2021).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유학생생활의 정체성이 부합되었을 때 생활적응을 증가시켰는데, 정체성, 상호협력, 긍정적 인지를 보인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자본도 그들의 공유가치나 심리적 욕구에 대한 촉진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은 생활적응을 위

한 정체성의 확립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능성, 관계성, 효능감과 도전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학교 생활적응이 증가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대학교 생활적응이 증가하리라고 가정하였다.

가설1. 사회적 자본은 대학교 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사회적 자본은 개인-정서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사회적 자본은 학업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자본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유치는 학교의 국제화와 세계학교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학생 개인의 학습성과, 학습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유치, 학생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학교 및 교수, 학우들과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상호협력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기본심리욕구를 강화한다(윤지은, & 강영배, 2019; Van den Hooff, & Huysman, 2009).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재적 지원에 의해 학업수행이나 학업성과를 창출하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자본과 무형의 관계자본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진로불안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학습역량강화를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교들이 여러 지원 정책에 따라서 과거의 ‘금전적 지원’ 유치 방식이 현저하게 유용하지만, 최근 새로운 환경변화(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속에서 학습성과나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강화된 학습역량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에 의해 작동되고, 이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동기가 과거의 학습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을 의미하는 기본심리욕구가 증가할수록 학습성과 또는 학습동

기, 학습몰입, 삶의 만족, 대학교 생활적응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thans, Luthans, & Chaffin, 2019).

따라서 자신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업이 사회적 자본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유학생일수록 현재의 학교가 자신의 경력, 능력, 학습동기, 기본심리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을 의미하는 기본심리욕구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Van den Hooff, & Huysman, 2009; Hetland, Hetland, Andreassen, Pallesen, & Notelaers, 2011).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분야에서 대두된 사회적 자본은 유학생들이 현재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 코칭, 멘토링, 교환관계 등을 통해 자신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무형의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인적 기본심리욕구가 성장하도록 도울 때 유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부정민, 강대옥, & 강은희, 2016; 이명숙, 최효식, & 연은모, 2019; Brown, & Ryan, 2003).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자본 등의 내재적 지원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을 자신의 일관적이고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을 의미하는 기본심리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Brown, & Ryan, 2003; Hetland, Hetland, Andreassen, Pallesen, & Notelaers, 2011). 또한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개인적인 관심에 있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Deci & Ryan(2012)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지원하는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그리고 정신건강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대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촉진하는 요인이 부재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증가할 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인 기본심리욕구의 감소로 인해서 심리적 건강과 질병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교환관계 형성이나 사회적 자본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윤지은, & 강영배, 2019; Schultz, Ryan, Niemiec, Legate, & Williams, 2015).

사회교환이론의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 학우로부터 사회적 자본을 받거나 사회적 자본을 인지할 때, 그에 부합하는 교환관계를 갖고 행

동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재의 학교와 자신의 학업완수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면 현재의 학교에 더욱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자본이 증가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사회초년생인 만큼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인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 필요한 공유 가치, 신뢰,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Van den Hooff, & Huysman, 2009). 또한 Deci & Ryan(2012)의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내재적 동기부여는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사회적 자본에 의한 무형의 관계로부터 발현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사회적 자본을 인지할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2.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본심리욕구와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

그동안 유학생 유치 및 정책이나 유학생 학교생활 분야에서 학업성취도, 대학교 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 선행변수는 학습동기, 목표지향성, 교사관계, 기본심리욕구 등으로 연구되어왔다(김남희, & 김종백, 2011; 이은주, 2021). 다시 말해서 학습동기, 목표지향성, 교사관계,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학교와 교수, 학우들의 상호 협력적, 호혜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학교의 적응과 학업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서·태도를 갖고 적응행동으로 발현된다(황영훈, & 이은주, 2017).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유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좌우하는 기본심리욕구가 높을수록 대학교 생활적응이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이수진, & 이지은, 2021). 특히 기본심리욕구는 대학교 생활적응의 원천인 심리만족의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촉매제’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남순현, 2021).

기본심리욕구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교의 학업목표 달성과 자신의 진로선

택을 도전하는 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결정의 만족으로 대학교 생활적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학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 생활적응은 학습동기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에서도 가능하겠지만(Van den Hooff, & Huysman, 2009; 남순현, 2021), 기본심리욕구가 작동시킨 대학교 생활적응은 본래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심리적 만족이라는 의미에 더 합당하고 진정한 대학교 생활적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교 생활적응이 본래 ‘심리적 만족의 행동’이기 때문이다(유민, 이의연, 전정호, & 이종민, 20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기본심리욕구가 대학교 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기본심리욕구가 개인-정서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기본심리욕구가 학업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기본심리욕구가 사회적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논의와 같이, 대학교에서 주어지는 학교, 교수, 학우들 간의 사회적 자본은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이 높은 대학생들에게는 호혜성, 심리적 만족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 유학생들의 학업목표 달성과 완수를 위한 기본심리욕구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한별, 2009; 남순현, 2021; Bruning, Dempsey, Kauffman, McKim, & Zumbunn, 2013). 한편 사회교환이론에 의거해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충족된 기본심리욕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이나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개인-정서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증가시킬 것이다(김한별, 2009; 유민, 이의연, 전정호, & 이종민, 2019; 이은주, 2021; Emerson, 1976; Van den Hooff, & Huysman, 2009). 이

러한 관점에서 Van den Hooff, & Huysman(2009)도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본심리욕구가 높고, 자신의 학교, 학우들과의 교환관계에 대해 심리적 만족을 하며, 대학교 생활적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극복하고자 하고, 이러한 극복에 필요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시키며 강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Deci & Ryan(2012)도 자기결정이론에 기반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심리적, 사회적 관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대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에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향상될 수 있다. Schultz, Ryan, Niemiec, Legate, & Williams(2015)는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작동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이겨내야 할 도전과, 정서적, 사회적 적응을 증가시키며, 어려운 과제를 이겨낸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12)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1.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개인-정서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2.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학업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4-3.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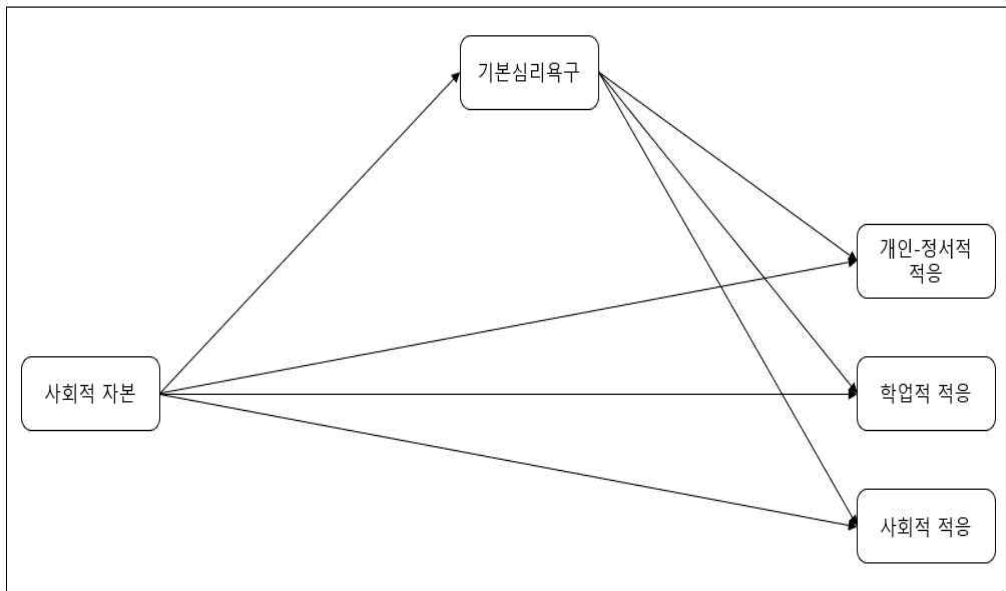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그림 1]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에 의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김태선 & 김천기, 2007; 윤지은 & 강영배, 2019)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 간에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대학교 생활적응인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관계성, 유성감, 효능감을 통해 충족되는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대학교 생활적응이 변화될지를 고려하였다(Valenzuela, Park, & Kee, 2009). 또한 대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사회적 자본에 의해 강화될지와 매개효과를 가질지 고려하였다. 이때, 사회교환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에 의한 기본심리욕구가 대학교 생활적응에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개인의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사회교환이론과 이익연, 이준혁, & 전정호(2019), 하선숙, 이익연 & 전정호(2021)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개인의 인지, 정서, 태도 행동의 패턴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사이에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12) 관련 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국내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생활적응을 증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학생들의 학습역량강화 증가에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학생활의 대학교 생활적응이 낮은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역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가시키

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대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통합적 이론 모델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대학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Ⅵ.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고, 대학교에 재학한지 6개월 이상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학교에서 신입생과 2학년 미만인 대학생일 경우에,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대학교 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다른 학교 지인을 통해 눈덩이 무작위 표집법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설문응답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기프티콘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21일부터 2019년 08월 21일까지 약 60일 정도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06명의 2학년 이상 대학생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101부를 제외하였으며, 총 205명 대학생들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G*Power3에 의한 사전 통계적 검증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변수 5개이고, 독립변수 1개이며, 매개변수 1개인 경우, 최소표본수 107개 이상으로 수집해야 되는데, 본 연구는 최종분석에 205개 표본을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통계적 검증력을 가진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 허가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성별은 남자 90명(43.9%), 여자 115명(56.1%)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24.08세(SD=4.36)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37명(18.0%), 2학년 40명(19.5%), 3학년 50명(24.4%), 4학년 78명(38.0%)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82명(88.8%), 자연계열 11명(5.4%), 예체능계열 11명(5.4%), 의학계열 1명(0.5%)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가입유무는 유 71명(34.6%), 무 134명(65.4%)으로 나타났고, 월 용돈은 30만 이하 49명(23.9%), 30~50만원 74명(36.1%), 50~70만원 42명(20.5%), 70만원~100만원 21명(10.2%), 100만원 이상 19명(9.3%)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기숙사 40명(19.5%), 통학 113명(55.1%), 자취 49명(23.9%), 하숙 3명(1.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1) 측정도구

1) 사회적 자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유민, 이의연, 전정호, & 이종민(2019)이 한국어 버전으로 번안·타당화한 Van den Hooff, & Huysman(2009)의 사회적 자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 척도는 구조적 자본 7개 문항(예: 나는 대체적으로 학우들과 매우 좋은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지적 자본 7개 문항(예: 나는 학교의 비전(=교육이념 및 목표)을 다른 학우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관계적 자본 7개 문항(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우들이 나를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척도를 통해 대학생 간에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 척도의 타당도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0.719-0.896)가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의 잠재변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유민, 이의연, 전정호, & 이종민, 2019),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 안녕감($r=0.526$), 개인-정서적 적응($r=0.251$), 학업적 적응($r=0.170$), 사회적 적응($r=0.679$)과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유민, 이의연, 전정호, & 이종민, 2019). 또한 이의연, 이준혁, & 전정호(2019)의 연구에서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의 신뢰도는 각각 0.895, 0.873, 0.866으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0.940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 척도는 잠재변수를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전체 신뢰도는 0.868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는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 구조가 존재할 때, 2차 요인모델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Muthén, & Muthén, 2012)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2차 요인모델을 측정하고자 한다.

2) 기본심리욕구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명희 & 김아영

(2008)이 한국어 버전으로 번안·타당화한 Ryan & Deci(2002), Deci & Ryan(2002)의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자율성 6개 문항(예: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성 6개 문항(예: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관계성 6개 문항(예: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6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타당도는 선행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0.600 이상임)가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의 잠재변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희 & 김아영, 2008), 기본심리욕구는 내재적 목표($r=0.494$), 외내적 목표($r=0.264$), 심리적 안녕감($r=0.738$), 우울($r=-0.340$)과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김성수, 2015). 또한 김성수(2015)의 연구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신뢰도는 각각 0.700, 0.780, 0.820으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0.9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잠재변수를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심리욕구 전체 신뢰도는 0.760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측정도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인 기본심리욕구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 구조가 존재할 때, 2차 요인모델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Muthén, & Muthén, 2012)을 바탕으로 기본심리욕구 2차 요인모델을 측정하고자 한다.

3) 대학교 생활적응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민, 이익연, 전정호, & 이종민(2019)이 한국어 버전으로 번안·타당화한 Baker, & Siryk(1984)의 대학교 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교 생활적응 척도는 개인-정서적 적응 13개 문항(예: 최근 들어,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학업적 적응 7개 문항(예: 대체적으로 수강했던 강의의 질적 수준이나 다양한 개설과목에 만족하고 있다), 사회적 적응 5개 문항(예: 나는 대학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생활적응 척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교 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생활적응 척도의 타당도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0.573-0.881)가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잠재변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권선주, 2018), 개인-정서적 적응은 학업적 적응($r=0.240$), 사회적 적응($r=0.300$)과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권선주, 2018). 또한 신지연(2014), 권선주(2018)의 연구에서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신뢰도는 각각 0.850, 0.700, 0.850으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0.860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척도는 잠재변수를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개인-정서적 적응(0.859), 학업적 적응(0.653), 사회적 적응(0.903)으로 나타났다. Baker, & Siryk(198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 생활적응의 하위차원인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은 대학교 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하위차원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2학년 이상의 내·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SPSS 26.0, Mplus 8.7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나누어지고, 구체적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변수들은 단일원천(동일대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요인 확인(검증)법(Harman's One 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하선숙·이의연·전정호, 2021). 셋째,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구조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

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8.7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잠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을 [표 1]에 제시하였고,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관측문항들이 잠재변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측정하는지, 잠재변인들의 타당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확성과 판별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활용된 잠재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댓값 기준인 왜도=2, 첨도=7보다 크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Finch, West, & MacKinnon, 1997).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나누어지고 검증하며,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최대우도법의 정규성 가정을 따른다. 최대우도법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모집단이 아닌 표본으로 가정하고 관측문항들의 관측치를 고정하며 최적화된 측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써 추정치의 기댓값과 모수치를 일치하게 추정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비편향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즉, 연구에 사용된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추정치가 실제 모수에 근사한 일관성을 나타내고, 산출된 추정치들이 서로 유사한 효과성을 가지며, 측정모형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집중타당성), 관측문항들이 해당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잠재변인을 정확히 구인하고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집중타당성)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은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139.489$, Df=1018, CMIN/DF=2.177, CFI=0.817, TLI=0.805, RMSEA=0.073,

RMR=0.072).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관측문항들이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잠재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측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요인부하량인 β 값=0.509-0.932, $p < 0.001$)****. 이는 본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내용적 타당성, 개념타당성, 집중 타당성(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잠재변수의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상관관계 및 연구변수별로의 독립성(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 종속변수인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는 판별타당성을 파악하고,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의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의 강도를 나타내 주고 판별타당성을 확보한다(하선숙·이의연·전정호, 2021).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은 주요 잠재변수의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강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잠재변수의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고, 연구에 활용된 연구변수(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각각의 독립성에 대한 판별력을 확보해 준다(이의연·이준혁·전정호, 2019; 우종필, 2015). 잠재변수의 구성개념들 간에 나타난 상관관계의 강도와 유의수준에 의해 관련성의 유·무가 결정되어 판단되고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구분되어 판별되기 때문에,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모든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의 전제조건이 되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이일현, 2014).

잠재변수의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기본심리욕구,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모든 구성개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기본심리욕구($r=0.504$), 개인-정서적 적응($r=0.251$), 학업적 적응($r=0.170$), 사회적 적응($r=0.679$)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와 개인-정서적 적응($r=0.258$), 학업적 적응($r=0.302$), 사회적 적응($r=0.643$)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

**** 모델적합도인 CMIN/DF=4.0 이하, CFI, TLI=0.900에 근접하고 RMSEA, RMR=0.080 이하로 나타나면 모델적합도 충족된다(Fornell & Larcker, 1981).

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r=0.232$), 사회적 적응($r=0.320$)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변수	M	SD	A	B	C	D	E
사회적 자본(A)	3.502	0.751	(.790)				
기본심리욕구(B)	3.800	0.589	.504**	(.673)			
개인-정서적 적응(C)	3.081	0.875	.251**	.258**	(.503)		
학업적 적응(D)	3.216	0.827	.170*	.302**	.232**	(.590)	
사회적 적응(E)	3.759	0.852	.679**	.643**	.320**	.282**	(.721)
왜도			-0.225	-0.012	0.031	0.074	-0.272
첨도			-0.259	-0.287	-0.475	-0.290	-0.550

1. ** $p<0.01$, * $p<0.05$ 수준에서 유의함.
2. 대각선으로 괄호 안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분산추출지수(AVE)값임.
3. 대각선 아래는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임.
4. A=사회적 자본, B=기본심리욕구, C=개인-정서적 적응, D=학업적 적응, E=사회적 적응.

판별타당성은 Fornell & Larcker(1981)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잠재변수의 개념들 간에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였으며(Fornell & Larcker, 1981), 잠재변수들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면 잠재변수들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간의 상관계수 중 가장 큰 값은 0.679(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적응)이며, 이것의 제곱인 결정계수는 0.461(0.679×0.679)인데 비해 가장 작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503으로 0.461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Fornell & Larcker, 1981)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우종필, 2015).

넷째, 본 연구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는 데 동일한 측정원천의 편의방법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동일방법편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방법편의 오류의 확인에 대한 사후적 검증을 의미하는 단일요인 확인(검증)법(Harman's One Factor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추출의 추출할 요인을 1로 지정하여 요인회전을 설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시행한 결과 전체 분산의 26.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plus 8.7을 사용하여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결과(SEM-Common Method Bias)에서도 모든 관측변수를 하나의 잠재요인으로 설정한 분석모형은 측정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29.710$, $Df=1034$, $CMIN/DF=2.926$, $CFI=0.706$, $TLI=0.693$, $RMSEA=0.092$, $RMR=0.20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잠재변수에 대한 연구자료는 동일방법편의 오류 문제가 연구모형을 의미하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Podsakoff & Organ, 1986).

2. 구조모델

본 연구에서 앞서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8.7 최대우도법의 구조방정식 분석(CB-SEM)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매개변수인 기본심리 욕구, 종속변수인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바이어스 추정법(Bootstrapping Bias-Corrected Method)을 이용하여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바이어스 추정법은 고전통계추정법(P-value: $p < 0.05$)보다 부트스트랩 추정치의 비대칭성을 더욱 엄밀하게 반영해서 신뢰구간(현대적 통계추정법)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통해서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타당성을 결정하고 추정하는 방법이다(Hayes, 2018, 2018; 우종필, 2015). 이 방법은 추정치의 표본분포가 편포된 경우(정규분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우종필, 2015).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추정법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위해서는 95% 신뢰구간 범위(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에 0이 포함돼서는 안된다(Hayes, 2013, 2018; 우종필, 2015). 이러한 신뢰구간을 토대로 한 Hayes (2013, 2018)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르면, 완전매개와 부분매개의 판정용어를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완전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표본크기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나 가치, 그리고 의미적 해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Hayes(2013, 2018)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가설 및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가설1부터 가설3까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은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1은 기각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2는 기각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3은 채택되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사회적 자본이 향상될수록 사회적 적응이 되고 진로에 대한 긍정적 목표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회적 정서역량을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설2는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생들이 학교나 학우들로부터 후원과 지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 학습성과를 달성하면서 자신의 역량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3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기본심리욕구가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1은 기각되었다. 둘째, 기본심리욕구가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2는 채택되었다. 셋째, 기본심리욕구가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3은 채택되었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심리욕구가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Bootstrapping의 Bias-Corrected Method를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반복적으로 추정하였다. Bias-Corrected의 접근법은 부트스트랩 추정치의 비대칭성을 더욱 엄밀하게 반영해서 신뢰구간(현대적 통계추정법)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Bootstrapping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매개모형의 신뢰성·타당성을 검증하였다(Hayes, 2013). 본 연구의 자료가 연구모형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2=2278.117$, $Df=1316$, $CMIN/DF=2.998$, $CFI=0.838$, $TLI=0.827$, $RMSEA=0.060$, $RMR=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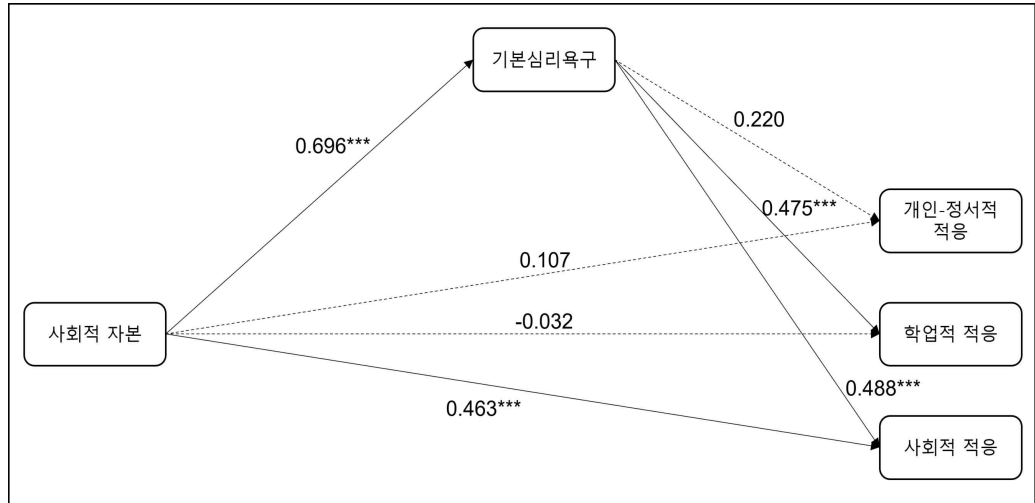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이 개인-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beta=0.261$) 중, 직접효과는 $\beta=0.107$ 이고, 간접효과는 $\beta=0.154$, $p>0.05$ 로 나타나 가설4-1은 기각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지속적 기본심리욕구가 강화되었지만 개인-정서적 적응을 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개인-정서적 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가설4-1은 기각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beta=0.272$) 중, 직접효과는 $\beta=-0.029$ 이고, 간접효과는 $\beta=0.301$, $p<0.01$ 로 나타나 가설4-2는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지속적 기본심리욕구가 강화되기 때문에 학업적 적응을 하는 데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학업적 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므로 가설4-2는 채택되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총효과($\beta=0.925$) 중, 직접효과는 $\beta=0.533$ 이고, 간접효과는 $\beta=0.392$, $p<0.01$ 로 나타나 가설4-3은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지속적 기본심리욕구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므로 가설4-3은 채택되었다.

[표 2] 구조모델 분석

경로			β	S.D	T	P	
사회적 자본	→	개인-정서적 적응	0.107	0.157	0.679	0.497	
사회적 자본	→	학업적 적응	-0.032	0.183	-0.175	0.861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적응	0.463	0.135	3.431	0.001***	
사회적 자본	→	기본심리욕구	0.696	0.094	7.434	0.000***	
기본심리욕구	→	개인-정서적 적응	0.220	0.172	1.285	0.199	
기본심리욕구	→	학업적 적응	0.475	0.186	2.551	0.011**	
기본심리욕구	→	사회적 적응	0.488	0.138	3.545	0.000***	
매개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하한선	상한선
사회적 자본→기본심리욕구→개인-정서적 적응			0.153	0.107	0.260	-0.095	0.402
사회적 자본→기본심리욕구→학업적 적응			0.331	-0.032	0.299	0.029	0.633
사회적 자본→기본심리욕구→사회적 적응			0.340	0.463	0.802	0.101	0.579

1.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2. $n=205$,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야 유의함.
3. 모델적합도: $\chi^2=2278.117$, $Df=1316$, $CMIN/DF=2.998$, $CFI=0.838$, $TLI=0.827$, $RMSEA=0.060$, $RMR=0.075$

[그림 2]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V. 결론

1. 연구요약 및 토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적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runing, Dempsey, Kauffman, McKim, & Zumbrunn, 2013)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의 상황에서 개인-정서적 적응보다 사회적 적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내국인 대학생들에게 개인-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이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적응의 방식 및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직접적으로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본심리욕구를 통해서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개인-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교 생활하는 데에 있어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향후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정서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강화시키는 것은 대인관계나 집단목표를 달성하는 집단주의 성향을 더욱 많이 제공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이유는 대학교에서 개인적인 욕구보다 미래를 위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더욱 우선시하는 주입식 교육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유민·이의연·전정호·이종민, 2019)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보다 유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에 의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응될 수 있다. 대학교 생활적응에 대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인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인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chultz, Ryan, Niemiec, Legate, & Williams, 2015).

셋째,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학습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가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장려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심리욕구가 증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인 호혜성의 원칙을 통해, 학업을 이수하는데 학교, 교수, 학우들과의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도와주고, 미래도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심리욕구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며, 결국 양질의 유학생 졸업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도약된 한국문화의 수용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문화적 교류나 문화적응을 어려워하는 유학생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부각시키고, 문화이해, 학습동기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학교나 교수, 학우들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강화하고 심리적 욕구인 기본심리욕구와 대학교 생활적응의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하였고,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둘째, 학생 교육 및 관리 관점에서 많은 변수들이 기본심리욕구와 대학교 생활적응의 선행변수로 제시되고 있지만,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고 실증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과 함의를 가진 연구로 가치가 있다. 또한 대학교에서 인재배출과 학생들의 학습역량강화를 증가시키는 데,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역학은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자본은 학생들 간의 교환관계와 함께 주어질 경우, 학생들의 개인-정서적, 학업적, 사회적 적응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황영훈, & 이은주, 2017). 선행연구들은 학교에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면, 학업중도포기를 낮추고, 대학교 생활적응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본심리욕구는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학업포기를 유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인 대학교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사회적 자본과 함께 이루어질 때 학생 개인에게는 더 기본심리욕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사회교환이론 확장에 기여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적 자본을 가지게 되면,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인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사회교환이론에 의해 설명되었다는 데에 이론적 확장을 기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학업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업목표지향성을 증가시키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본심리욕구를 강화시키는 등, 결국 대학교 생활적응(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많은 학교들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경영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 대학교 생활적응을 높이는 학생의 관리방안을 도모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대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대학교 생활적응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향상시키는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나 교수, 학우들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과 무형식 학습, 지식공유가 사회적 교환관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은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하는 기본심리욕구를 강화시키는 것은 대학교 생활적응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잠재력을 보유하거나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여 기본심리욕구를 높일 수 있는 반면, 충분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지 못하게 되고, 대학교 생활적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령 인구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교에서 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에 대학교 생활적응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인재배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심리욕구는 사회적 자본과 대학교 생활적응(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선행요인으로써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성찰과 통찰력을 갖추고 정원확충에 대한 방압과 제언을 정확하게 설정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거나 기본심리욕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학교의 비전, 목표,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교와 교수, 학우로부터 받는 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는 사회적 자본이 전제되어야 학교생활을 위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전체 학생이 상호협력, 학교지원, 정체성 의식이나 상호작용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을 통해 기본심리욕구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4.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미래사회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 제반 사회적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첫째, 대학교는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자 올바른 성인으로서의 자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수련과정’이고, 개인이 미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학습하고 축적하는 것이며, 개인의 일생동안 제일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중요한 적응의 ‘첫걸음’이

라고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 미래사회에 상당한 실무적 의미가 있다. 둘째, 대학교라는 과정은 사람들에게 청소년기를 지내, 성숙하고 원활한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써,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많은 노하우들을 배우고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는 데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특히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 생존수단과 사회규범, 법치, 가치를 제공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다양한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나 선후배의 대인관계에서 관계적 갈등이나 학업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를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해쳐 나가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기이며 신체적이고 심리적으로 힘든 시련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한 시련을 대처하는 능력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 주고 인생의 가장 첫단계인 대학생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사회적 자본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5.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대학교 생활적응(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기본심리욕구와 대학교 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선행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교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적응능력을 증가하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점에서 구조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시계열의 분석이 아니고, 실험연구도 아닌 하나의 특정시점에 모든 연구변수들(예측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적 연구로 실시하여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동일방법편의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나 관점인식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거의 인지, 정서, 태도, 행동의 패턴이 현재나 미래의 인지, 정서, 태도, 행동의 패턴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나 실험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향후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도나 시계열에 따라 연구설계를 실시하고, 변수들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매개변수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였지만,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변수를 설정하지 않았다. 기본심리욕구는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향후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선정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동일방법편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도를 비롯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 종속변수인 대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시계열을 의미하는 시간 간격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응답원천을 달리하고, 각 지역의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방법편의 오류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설문조사를 설계하거나 응답원천, 각 지역의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시계열을 의미하는 시간적 간격을 두거나 응답의 원천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학교 생활적응(개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측정 및 영향력 크기, 진실성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의 설문응답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나 응답의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을 관측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기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학교문화의 영향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 자기보고식의 평가에 대해 더욱 정확한 평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인과 내국인 대학생의 구분하여 분석하는 점에서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는 여러 다문화 요인을 고려하고,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200개 표본의 양적인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집을 더 늘려서, 전국의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선주. (2018).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분노 반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희, & 김종백.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태선, & 김천기. (2007). 교육부문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1), 97-121.
- 김한별. (2009). 교사의 무형식 학습에서 사회적 자본의 의미.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3), 27-45.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 부정민, 강대옥, & 강은희. (2016). 대학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서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3),
295-318.
- 신지연. (2014).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민, 이익연, 전정호, & 이종민. (2019).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483-501.
- 윤지은, & 강영배. (2019). 대학생의 가정 내 사회자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7(2), 31-46.
- 이명숙, 최효식, & 연은모. (2019).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5 요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3), 71-81.
- 이명희, &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세나. (2021).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대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 & 이지은. (202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485-502.
- 이은주. (2021). 기본심리욕구만족 일반요인과 개별 욕구만족 특수요인:
수업참여, 또래관계, 사회불안에 대한 예측효과. 교육심리연구, 35(3),
437-461.
- 이의연, 이준혁, & 전정호. (2019). 사회적 자본과 조직몰입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2(4), 43-85.
-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정연. (2021). 교사 피드백이 외국인 유학생의 쓰기 능력과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0(0), 63-91.
- 하선숙, 전정호, & 이의연. (2021).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어떻게
높이는가?: 그릿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34(5), 1043-1077.
- 한국교육개발원. (20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

- 황영훈, & 이은주. (2017). 중학생의 사회적 목표,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또래관계의 질 및 수업참여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1-21.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22-848.
- Bruning, R., Dempsey, M., Kauffman, D. F., McKim, C., & Zumbunn, S. (2013). Examining dimensions of self-efficacy for wri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1), 25-38.
- Carter-Francique, A. R., Hart, A., & Cheeks, G. (2015). Examining the value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for Black student-athlete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19(2), 157-177.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431-441).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 Ryan, R. M. (2012).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within embedded social contexts: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R. M. Ry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uman motivation* (pp. 85-10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merson, R. M. (1976).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335-362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inch, F.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New York, NY: Guilford.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Hetland, H., Hetland, J., Andreassen, C. S., Pallesen, S., & Notelaers, G. (2011). Leadership and fulfillment of th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work.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6(5), 507-523.
- Jenkins, S. R., Belanger, A., Connally, M. L., Boals, A., & Durón, K. M. (2013). First-generation undergraduate student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6(2), 129-142.
- Lin, N.(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UK, Cambridge; U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thans, K. W., Luthans, B. C., & Chaffin, T. D. (2019). Refining grit in academic performance: The mediational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43(1), 35-61.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Version 7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rothers, L., & Lockhart, C. 2000. Culture and politics: A reader(223-23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eam, R. K., & Rumberger, R. W. (2008). Student engagement, peer social capital, and school dropout among Mexican American and non-Latino white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81(2), 109-139.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 3-33.
- Schultz, P. P., Ryan, R. M., Niemiec, C. P., Legate, N., & Williams, G. C. (2015). Mindfulness, work climate, and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mployee well-being. *Mindfulness*, 6(5), 971-985.
-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Van den Hooff, B., & Huysman, M. (2009). Managing knowledge
sharing: Emergent and engineering approaches.
Information & management, 46(1), 1-8.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

Shan-Shu He* · Yi-Ran Li** · Jeong-Ho Jeon***

Abstract

In order to suggest ways to reduce academic stress and cultural adaptation problems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in which students' social capital affec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This study derived four hypothese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social capital,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and other countries from July 21 to August 21, 2019, securing 300 responses and using 205 copies for the final analysis. For hypothesis verification, SPSS 27.0 and Mplus 8.7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tudents' social capita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cademic adaptation.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daptation. Fourth, it was found that basic psychological need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llege life adaptation. In addi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college students, including foreign students, and revealing that the formation process is explained by social exchange theory. Practical implication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need for active policy improvement and support so that universities can strengthen such social capital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formation of reciprocity principles.

Key word : Social Capital, Basic Psychological Needs,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 First Auth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ctor Student, hasunsook@dankook.ac.kr

** Co-Auth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liyiran8986@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edjohn90@dankook.ac.kr
